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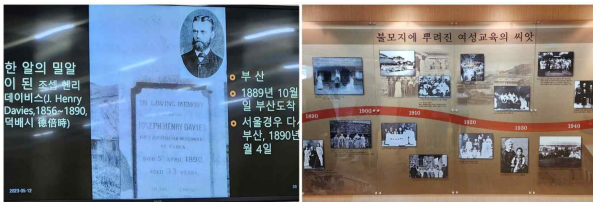
열세번째 이야기

사랑을 전하는 길

[찾아온 사랑을 찾아서- 영남 편 후기]

기쁘고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해지기까지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여행 '찾사찾' 영남 편을 광클로 신청하여 당당히(?) 선착순으로 선택되었다. 야호!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로 준비하며, Zoom으로 만난 부산지부 지체들을 만나는 설렘을 안고 서울역에서 처음 KTX를 타는 호사를 누렸다. 부산을 향하는 KTX 안에서 찾사찾 영남 편 핸드북에 기록된 영남 선교의 밑알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에 대한 소개는 들었지만 또 다른 감동으로 여행에 대해 기대를 하게 하였다.



당시 미개하고 열악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일생을 읽으며 롬10:15(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의 구원의 사슬을 묵상하였다.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건강한 교회와 신실한 주의 일꾼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길 원하심을 깨달았다. 그런 면에서 BEE 말씀 사역은 복음이 복음 되게 하고, 또한 재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축복이자, 빛진 자의 마음으로 임하는 모든 지체가 그 축복을 누

리고 있음에 감사하였다.

부산 도착! “어서 오이소”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부산지부 지체들의 환영 인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기쁨을 충만케 하였고, 함께하는 '찾사찾' 영남 편 1박 2일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열정(매운맛)의 식사 후 부산진 교회와 일신여고 역사관 방문은 경남 선교 120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헌신으로 기쁘게 감당한 선교사들의 사진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은 삶의 자리에서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을 알게 하였다. 목숨을 바친 아름다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태도를 결단하게 하였다. 호주 여선교사들의 사진에서는 BEE 여선교사들의 얼굴이 오버랩되고, 여러 나라로 파송되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듯 우리 역시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선교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튿날, 부산지부 토요 기도회의 시작 기도로 하나가 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부산 지체들과 교제

하는 시간이 동백섬 투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였다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구동성 한마
음으로 말하였다.



47세 젊은 나이에 옥사하며 남긴 유산 ‘일사각오(一死覺悟)’의 네 글자! 오직 믿음으로 거대한 일제 권력에 맞서 싸운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삶을 스토리 텔링으로 감명 깊게 듣고 본 주기철 목사 기념관과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은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 전해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길을 걸어야 함을 다시 결심하게 하였다.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 아래 요트(모세는 갈대 상자, 나는 요트)에서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들으며,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오늘이고 내일이어야 함을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였다.



[글쓰기 박은진 집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2018년 BEE가 뭔지 모르고 왔다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새신자 아닌 새신자이다. A국과 식구들과 함께하는 중보기도자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죽은 세레 요한이
다시 살아 온 걸까?



헤롯 안디바

갈릴리 나사렛 출신
한 사내의 이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말이다.

정말 요한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일까?



요한을 옥에 가두니
이번엔 민심이 미쳐서 날뛰었다.
내 권력을 위협하는 그였지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다.



한데 그녀가 내게
항거할 수 없는 생일선물을 선사했다
눈을 뜬 채 갱반에 담겨 온
요한의 초점 없는 눈동자,
바닥에 주르르 흐르던
그 섬멸한 적색의 액체...



매일 밤 열 번씩 지옥에 빠졌다가
허우적대며 깨어난다.
뜨거운 연인 곁에 누워
날마다 재앙 같은 밤을 맞는다.

헤로디아를 탐했던 그 날 이후로
모든 게 일그러져갔다


$$\lim_{n \rightarrow \infty} \frac{1}{n} \sum_{k=1}^n \frac{1}{k} = \lim_{n \rightarrow \infty} \frac{1}{n} \ln n = 0$$

요한이 내 이혼과 새 연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헤로디아는 격분을 참지 못하고
나를 들볶았다.
저 미친놈의 주둥이를
왜 들어막지 못하냐고 말이다.



내가 마케루스 감옥에
요한을 가두고 난 뒤에
혹여 헤로디아가 손을 뻗칠까
철통같이 지켰던 이유는,
그를 죽이면 그의 하나님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였다.



그때, 양심을 지행하던
마지막 현 한 줄이 툭 끊긴 듯
“폐!” 내면의 붕괴음이
천둥 같은 이명으로 들려왔다.

내 속의 또 다른 자아가
태막을 터뜨리고
나온 느낌이었다.

‘왕이 이 정도도 못 해?’
비겁한 합리화로 그날을 덮었다

칼 대까지 가게 내버려 두면
난 어떻게 변해 있을까.

요한의 현신이라는 그 사내...
혹시 하나님의 복수일까?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아프리카 현지화 사역을 위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본부로 보내주세요! 선교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2. 2023 '여름방학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BEE KOREA

여름방학특강

고린도전서	(월저녁-줌)	6/12-7/31
성경을 펼쳐라 I	(월저녁-줌)	6/12-8/28
그리스도인의 결혼	(토저녁-도곡)	6/17-8/12
모세오경	(일저녁-줌)	7/2-8/27
히브리서	(화오전-202호)	7/4-8/29

문의 전화: 02-822-9480

등록비: 수강료 + 택배비(4,400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1-43004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학습서를 택배로 발송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